

총지종 제18대 통리원장에 인선 종사 선출

1월 19일 임시중앙총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



불교총지종은 2016년 임시 중앙총회(의장 수현 정사)를 1월 19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통리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중앙총회는 지난 1월 29일로 임기가 끝나는 불교총지종 제17대 범등 통리원장의 후임을 선출하는 선거가 열렸다.

통리원장 선출을 위한 이번 중앙총회는 총원 17명중 결원1명, 불참 1명으로 15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수현 중앙총회 의장의 주재로 열린 총회에서는 제 18대 통리원장으로 인선종사(현 총무부장, 관성사 주교)를 만장일치로 추대하였다. 임기는 3년간이다.

제18대 통리원장으로 추대된 인선 종사는 경남 진양 출신으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을 졸업했다. 총지종 총무계장, 총무부장, 통리원장 직무대행 등 종단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불교총지종은 인선 종사의 통리원장 추대로 그동안 시행 해 온 ‘새 종풍운동’과 교화와 수행에 박자를 가하고, 화합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통밀교 종단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종단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불교 총지종 제18대
통리원장 인선 종사 약력

- 법명: 인 선(忍禪)
- 속명: 강재훈(姜在勳)
- 본적: 경남 진양군 문산면 소문리
- 학 력
경남고등학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졸업
- 주요이력
총지종 총무계장, 총무부장, 전당건설위원, 사회복지재단이사, 유지재단이사, 동해중학교 이사, 통리원장 직무대행, 운천사 주교, 관성사 주교,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상임이사

불교총지종 총기 45년(2016년) 신년하례법회 및 기로스승 진원식



▲ 총기45년 불교 총지종 신년하례법회

총기45년 병신년 신년하례법회가 총기 45년(2016년)1월14일 오후 1시 총본산 서울 총지사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는 효강 종령을 비롯 범등 통리원장과 종단 집행부를 비롯한 각 사원의 주교, 기로스승 및 교도들이 동참 했다. 인선 총무부장의 집공으로 열린 법회는 원정기념관 참배를 시작으로 헌화, 승단 하례, 교도일동 하례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효강 종령은 법어에서 “올해는 원승의 해입니다. 원승이는 그 몸집이 날래고, 진화력이 좋은 동물입니다. 원승이처럼 활기찬 한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인간의 지나친 이기심으로 도덕이 붕괴되고, 자연을 훼손하여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모두가 이기심을 버리고 삼평등의 자비심을 발현 할 때입니다. 진언 수행으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고 가정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두루 비치시기를 서원합니다.”며 병신년 새해 다짐을 설했다.

범등 통리원장은 “새해 불공을 옹맹 정진으로 마친신 스승과 교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종단이 올해로 총기45년을 맞았습니다. 전 종도들이 합심하여 창종50주년 더 나아가 창종100주년을 준비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병

신년에도 서원하신 모든 계획들이 원만히 이루어지시기를 서원합니다.”며 인사말을 했다.

신년하례법회 후에는 기로스승 진원식이 이어졌다. 이번에 기로스승으로 진원된 인천 지인사 지성 정사는 효강 종령에게 가사를 반납하고, 새로이 기로스승 금

가사를 수여 받았다.

효강 종령은 법어를 통해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종조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수행정진과 교화에 매진하신 지성 정사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새로 진원한 지성 정사의 노고를 치하했다.

지 면 안 내

- 1면 총지종 제18대 통리원장 인선종사 선출
- 2면 주요종단 신년기자 간담회
- 3면 제18대 통리원 집행부 임명장 수여식
- 5면 황철명인 구영국 장인
- 6면 특집 대학생 불교학생회
- 9면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신년하례법회
- 11면 서적에세이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옹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니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보(弘布)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원정 대성사의 탄신으로 이 땅의 밀교를 다시세우다

제109주년 원정대성사 탄신대재 봉행



▲ 원정대성사 109주년 탄신대재

불교총지종 종조 원정 대성사 제109주년 탄신대재가 1월29일 원정기념관과 전국의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되었다. 제18대 통리원장 인선정사를 비롯한 통리원 집행부와 서울 경인교구 스승과 교도, 유가족 대표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개식사에 이어 스승 및 교도들의 헌화와 훈향 정공이 있었다.

효강 종령 예하는 통리원장 인선 정사가 대독한 법어에서 “원정 대성사님께서는 창종 후 삼밀과 육행을 수행의 덕목으로 하고 당상즉도(當相卽道) 색심불이(色心不二)의 원리에 입각하여 복지쌍수(福智雙修)로 사리(事理)를 구현함으로써 현세정화(現世淨化)와 즉신성불(卽身成佛)의 윤원대도(輪圓大道)를 얻게 하고, 단순했던 과거와 복잡한 현대에 제생의세(濟生醫世)하는 법이 다르므로, 특히 이원진리(二元眞理)를 밝혀 물심병진법(物心並進法)을 가르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

시불공(時時佛供) 처처불공(處處佛供)의 실천법으로써 생활시불법(生活是佛法) 불법시생활(佛法是生活)의 진리를 체득케 하는 동시에 활동하며 닦고, 닦으면서 활동하는 것을 실천하게 하는 방편을 세움으로써 교상(敎相)과 사상(事相)을 확립하였습니다. 오늘 원정대성사님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우리총지종의 모든 교도들은 종조님께서 열어 놓으신 훌륭한 법문과 수승한 밀법의 진리에 의지하여 변함없는 신심으로 조국평화통일과 밀엄국도의 대원을 이룩하고 나아가 전 인류가 진언밀법으로 하나 되어 온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정진해 나아갑시다.”며 원정대성사의 탄신으로 정통밀교를 이 땅에 바로 세우시고 나라와 중생을 위해 세우신 큰 뜻을 찬탄했다.

인선 통리원장은 봉행사에서 “우주법계와 우리를 마음 법계에 충만하시고 항상 하시는 진리의 부처님이신 비로자나불을

교주로 하고, 관세음보살의 본심 진언을 수행과 신행의 본존으로 모시고 언제 어디서나 당체 설법으로 보고 듣고 배우고 깨쳐가는 총지종문의 진언 수행자들은 공부와 수행을 잘하면 지혜와 자비가 충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원정대정사님의 탄신하신 은혜를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종조님 탄신 109주년을 맞이 하면서 종조님의 크나큰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갚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 입니다. 종조님의 은혜에 가장 크게 보답하는 길은 그 가르침을 믿고 그대로 잘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처님 은혜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존재의 은혜를 갚는 길이자 종단의 교세 발전을 이루자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조님의 가르침을 더욱 더 크게 펼치고 실천하는 뜻으로, 옹맹으로 수행정진 할 것을 총지종문의 모든 스승님들과 교도들과 함께 서원합니다. 더불어 종조님의 덕화와 법력이 우리 모두의 가정마다 깃들어 행복한 삶이되시기를 바랍니다.”며 종조님의 대원을 되새겼다.

김은숙 서울·경인 신정회장은 “오늘, 원정 대성사님의 탄신 109주년을 맞아 큰 스승으로서의 업적에 더욱 거룩하여 지나니, 저희들에게 길이길이 정진력과 자비지혜 구족케 하여주소서. 퇴전함이 없게 하소서. 용기와 건강, 희망을 갖게 하여주소서. 또한 모든 불사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일체 교도 가정에 화희와 행복이 충만하며, 일체소원이 두루 성취하게 하옵소서.”며 종조님 전에 발원하였다.

서울·경인 마니 합창단의 축하를 끝으로 제109주년 원정 대성사 탄신대재를 마쳤다.

생활의 불교화 · 불교의 생활화
卽身成佛의 大道 불교총지종

상반기 49일 불공

일 시 | 총기 45년 2월 20일 ~ 4월 8일

장 소 | 전국 서원당

대 상 | 총지종 교도 및 모든 불자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닌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허물을 참회하고, 조상으로부터 쌓아 온 업장을 소멸하는 지극한 불공을 해야 합니다.

모든 불자님들께서는 전생의 업장을 소멸해 해탈을 이루시고, 항상 마음자리를 살피 청정한 부처님이 되도록 수행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반기 49일 불공정진으로 모든 마장을 예방하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서원 드립니다.

(사진제공 = 포항 수인사 안성 정사)

 불교총지종 통리원

진각종 회정통리원장 “종단과 국가혁신의 새인연되길 서원”

2016년 신년간담회 개최



“진각 100년을 향한 대전진! 종단과 국가혁신의 새인연되길 서원합니다”

올해 창종 70년을 맞는 진각종 회정 통리원장은 1월 18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회가 어려울 수록 우리 불교가 해야할 일을 해야 한다”며 “쉽게 실천하고, 행하고 전하는 불교가 되도록 하는 콘텐츠

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회정 통리원장은 “통일 환경 노동등의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갖는 종단이 되도록 하겠다”며 “10월 임기가 끝나지만 인프라 구축후 더날 계획이다”고 천명했다.

또 “전승원이 올해 마무리 되면 문화 교육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수행자 다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종단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단 중점과제및 주요사업 발표에서 진각종은 JGO포럼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JGO포럼은 진각 100년의 구심점 마련에 초점을 두고 50~100명의 회원을 확보해 사단법인 설립후 불교를 옹호하고 외호하는 모음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구상이다.

진각종은 퇴임스승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추복전을 운영해 효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위패등을 모신다는 계획이다.

가정문화연구소도 설립해 부자복지 모자복지 조손가정 미혼모시설 설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진각종은 10월 31일 총인과 통리원장 임기가 끝남에 따라 10월 20일경 총인추대, 통리원장 선출이 있을 예정이다.

통리원장 선출은 원로스승 5인의 모임인 인의회에서 후보 2명을 뽑으며, 종회에서 선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관음종, 불기2560년 신년하례 법회 및 제53차 중앙종회 개최

해외포교와 관음종복지재단 활성화키로



대한불교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지난 1월 7일 정오 병신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여 종도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이날 총무원장 홍파스님은 “과거의

마음은 이미 지나간 것이어서 없고,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니 없고, 현재의 마음은 수시로 바뀌니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한 생각 한 마음을 올곧게 펼치고

정진하여 새해를 맞이하자고 강조 하였다.

이어서 오후 2시에 개최된 대한불교 관음종 제53차 중앙종회는 아래와 같이 지난해 4십4억2천6백 만원 결산 승인 및 4 십7억5천8백 만원의 올해 예산을 심의 의결하였고 정책 사업을 인준하였다.

특히 승려연수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종지, 종풍, 종무행정〉〈기부금영수증·화합〉〈경제동향〉의 내용을 정했다.

또 해외포교(라오코리안 기술대학 및 라오스 국립 동덕대학교 학생초청한국 문화체험)와 사회복지법인 관음종복지재단 활성화(종단 복지활동 일원화 및 후원계좌 CMS중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 유골 환수 사업(일한불교, 전일본불교), 중요무형문화제 122호 연등회 적극 참여의 건(공동체의식 고취)을 통과시켰다.

조계종 신년 기자회견 “은퇴 특수출가 제도 11월 종회 상정”

도심사찰 중심 보육시설 확충
사찰운영위원회 부실운영 인사조치



“제34대 집행부의 핵심 과제인 ‘전지동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은 2017년 기공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스님은 1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2016년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천명했다.

또 “사회에서 전문 역량을 갖고 활동해 온 분들과 은퇴 후 수행자의 삶을 꿈꾸는 분들이 귀의할 수 있도록 ‘은퇴 특수출가 제도’를 추진하겠다”며 “일정 자격과 전형을

거쳐 출가하고 전문 분야에서 소임을 맡아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동위원회와 화쟁위원회를 통해 불국정토 건설을 향한 사회 참여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기존 노동위원회는 사회노동위원회로 확대하며 실천위원으로 위촉된 스님들이 사회와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종단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대중공사는 사부대중이 주인이 되어 종단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는 아름다운 옛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며 “도심사찰을 중심으로 보육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도록

관련 계획 정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지승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과 도심 속 사찰 및 시설에는 적극 햇빛 발전소를 도입하겠다”며 “종단 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내 타당성 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승려복지제도는 이미 임원 치료비와 장기 요양비 지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국민연금을 종단 또는 교구본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약 30%의 미진한 가입률을 더 높여서 스님들의 노후보장에 실질적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사회와 함께 하는 사찰을 일구기 위해 시작된 주지인사고과제도는 더욱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직할교구의 경우 지난 5년간 재정, 전법, 어린이 청소년 포교, 복지 분야에 대한 평가제도 시행으로 인해 복지와 어린이 청소년 전법에 있어 괄목할 성과를 이뤘다”고 평했다.

스님은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며 “조계종은 올해 내 삶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보리심(菩提心)을 일으켜 실천해 나가는 새로운 신행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2015년 총지종 사회 복지재단 후원현황

* 광00 12개월 50만원씩 12개월 600만원
* 김00 12개월 30만원씩 12개월 360만원
* 조00 08개월 40만원씩 08개월 320만원

* 안00 03개월 40만원씩 03개월 120만원
* 네팔지진피해성금 2,000만원
* 불우이웃돕기쌀300포 지원 강남구청 1,170만원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눕니다

개 천 사	강 순 시	1/14	10,000
관 성 사	황 성 녀	12/31	10,000
	김 병 석	1/12	10,000
	인 선	1/25	20,000
기 로	대 관	1/25	10,000
	밀 공 정	1/25	10,000
	법 수 원	1/25	10,000
	법 장 화	1/25	10,000
	법 지 원	1/25	10,000
	불 멸 심	1/25	10,000
	사 흥 화	1/25	10,000
	상 지 화	1/25	10,000
	수 증 원	1/25	10,000
	선 도 원	1/25	10,000
	총 지 화	1/25	10,000
	일 성 혜	1/25	10,000
	원 봉	1/19	10,000
	지 선 행	1/19	10,000
단 음 사	법 연 지	1/14	10,000
덕 화 사	반 야 심	1/22	10,000
밀 인 사	정 정 회	12/28	5,000

	이 채 원	1/24	10,000
	이 연 주	1/24	10,000
	이 기 상	1/11	10,000
	안 옥 진	1/11	10,000
	이 성 수	1/11	10,000
	박 주 연	1/11	10,000
	이 수 연	1/11	10,000
만 보 사	정 덕 순	1/5	10,000
백 월 사	이 갑 진	1/15	10,000
벽 롱 사	양 정 현	1/11	10,000
	양 지 현	1/11	10,000
수 인 사	무 명 씨	1/5	10,000
	정 순 득	1/15	10,000
선 립 사	심 지 장	1/20	10,000
실 지 사	정 경 자	12/28	10,000
	정 성 우	1/5	10,000
실 보 사	이 순 옥	1/22	10,000
일원어린이집			
	이 상 옥	1/25	10,000
	김 용 미	12/28	10,000
	하 재 회	12/28	30,000

	김 지 연	1/25	10,000
	김 지 연	12/28	10,000
	이 준 동	1/25	10,000
	구 미 자	12/31	10,000
	이 향 례	1/25	10,000
	이 향 례	12/28	10,000
	이 현 직	1/25	10,000
	이 현 직	12/28	10,000
	김 지 영	1/25	10,000
운 천 사	무 명 씨	1/19	20,000
정 각 사	변 순 개	1/9	10,000
	조 성 화	1/25	10,000
	김 문 수	1/15	10,000
지 인 사	송 효 제	1/19	10,000
	지 성	1/19	10,000
	허 성 동	1/15	30,000
초록어린이집			
	황 화 성	12/28	30,000
	황 화 성	1/25	30,000
총 지 사	법 등	1/6	50,000
	장 동 옥	1/6	30,000

	박 정 회	1/22	10,000
	신 용 도	1/22	10,000
	손 경 옥	1/25	10,000
흥 국 사	지 정	1/19	20,000
화 음 사	무 명 씨	1/5	10,000
	인간방생	1/13	227,000
사원명무기명			
	김 갑 선	1/19	10,000

12월26일부터 1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가 됩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인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총지종 제18대 집행부 임명장 수여식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집행부 구성



▲ 제18대 집행부 임명장 수여식

1월 29일 불교총지종 제18대 집행부 임명장 수여식이 통리원에서 열렸다. 제18대 신임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총무부장 우인 정사, 재무부장 원담 정사, 사회 부장 지정 정사, 교정 부장 법일 정사, 총무국장 서강 정사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식 후 집행부 간담회에서 신임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제18대 통리원 집행부는 무엇보다도 소통을 최우선으로 중무행정을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집행부 각 부장님들께서는 모두가 총지종의 운명을 이끌어간다는 각오로 단합하여 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라니다.”며 새로 출범하는 집행부의 단합과 각오를 당부했다.

통리원 = 김종열 기자

관성사 박길화 보살 자녀

김대기 미래창조과학부 거대공공정책과장

부이사관 승진 발령



▲ 미래창조과학부 김대기 부이사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난 12월 15일자로 김대기 원자력과장을 부이사관으로 승진, 거대공공정책과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거대공공정책과는 우주개발, 원자력, 미래과학에 대한 정부 정책을 개발하는 총괄 주무부서이다.

신임 김대기 과장은 관성사 박길화 보살의 자녀로 불철주야 진언연송으로 자

녀들의 안녕을 비로자나 부처님께 서원 가지공덕으로 나라의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관성사 박길화보살은 총지종의 모든 불사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불공정진 및 수행에 남다른 모범을 보이는 교도이다.

관성사 신도들은 모두가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 공덕으로 이룬 일이라며 자신의 자녀가 승진한 것처럼 기뻐했다.

진주 화음사 이선자 보살

아들 전진우 군 서울대 합격



▲ 화음사 이선자보살과 아들 전진우군

화음사 교도 이선자 보살의 아들 전진우(진주 동명고 3년)군이 201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서울대 식물생산과학부에 합격했다.

어릴 때부터 명석한 두뇌와 남다른 재능으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전진우군은 공부 뿐 만이 아니라 활발한 교우관계와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다는 주변

의 평을 듣는다.

전군의 어머니 이선자 보살은 화음사 교도도 매 불공 마다 항상 먼저 나와 사원을 둘러보고 자신의 수행에 앞서 남을 먼저 생각하는 보살이다. 모든 것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 공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말하며 오늘도 불퇴전의 진언수행에 임하고 있다.

총지종 사원 『득락전(得樂殿)』

불공 및 운용 지침 마련

1년 6개월간 밀교연구소 주관으로

득락전 봉안 사원 주교의 회의 결과

밀교연구소(소장 법경 정사)는 종단 사원의 『득락전』을 운영하고 불공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총기43년(2014년)부터 시작되었던 득락전 사원 주교회의에서 사원 주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득락전’ 불공과 운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지난해 12월 28일 종령 예하의 재가를 받아 지난 1월 13일자로 전국 사원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였다.

총기43년(2014년)부터 시작된 득락전 관련 주교회의는 지난해 3월 27일 제서사 회의를 끝으로 1년 6개월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회의를 주관했던 밀교연구소장 법경 정사는 “득락전 운용과 불공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 것은 불공의식

과 운용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여 매 뉴얼을 정하되, 사원의 특성과 사정을 감안하여 주교의 재량과 융통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침으로 마련하였다”며 지침의 내용과 취지를 밝혔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득락전에 봉안된 불상을 ‘소불(小佛)’이라 하지 않고 ‘원불(願佛)’이라 통일하고, ‘원불’은 망자(亡者)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영식원불’과 생자(生者)의 소원성취를 발원하는 ‘축원원불’로 나눈 것이다.

이에 따라 득락전의 불공은 ‘영식불공’과 ‘축원불공’으로 나누어진다. 불공식순은 종단의 기존 불사법요에 따라 ‘영식전도불공식순’과 ‘전택축원불공식순’에 의거하여 봉

행한다. 또 평생으로 모시는 원불(願佛)을 평생불이라 하지 않고 만년불(萬年佛)이라 부르고, 10년, 1년간 봉안할 수도 있으며, 1개월, 2개월 이상 봉안할 수 있고 월초 불공 동안(1주간) 봉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간과 금액은 지침 이외에 주교의 재량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

‘원불’ 외에 ‘연등’도 봉안할 수 있다. 연등은 원불(願佛)과 마찬가지로 ‘영식등’, ‘축원등’으로 나누어진다. 득락전에 관심 있는 교도는 해당 사원에 연락하면 된다. 득락전을 봉안한 사원은 부산 성화사, 포항 수인사, 경남 진주 화음사, 대전 만보사, 대구 제석사, 서울 실지사, 경남 밀양 밀행사 등이다.

『종조법설집』 윤독회 제6차 모임 성료

밀교연구소(소장 법경 정사)는 지난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성남 법천사에서 『종조법설집』 윤독회 제6차 모임을 개

최했다. 이날 모임에서 『종조법설집』 가운데 ‘수행’ 편에 대한 윤독과 토론이 이어졌

으며,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제7차 모임은 2월 17일 대전 만보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부산불교연합회 신년하례법회 봉행

등록엑스포 유치 총력을 다하기로 결의



▲ 제18대 집행부 임명장 수여식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 스님)와 연합신도회(회장 이윤희)는 1월6일 부산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불기 2560년

병신년 부산불교계 신년하례회’를 봉행했다. 부산불교연합회장 수불 스님과 지역별 사암연합회 회장단,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해동 부산시의회회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올해 부산시가 추진 중인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기원 홍보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부산연등축제, 팔관회, 동지팔죽 나눔 등 불교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 이와 함께 2월22일 발대식을 목표로

부산불교계를 이끌어갈 제1기 부산불교 108인회 결성을 추진한다. 부산불교 108인회는 연합신도회가 추진 중인 ‘부산불교 100년사’ 편찬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부산불교연합회장 수불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올 한 해 불교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향토 부산의 문화적 토양을 풍성하게 가꿀 수 있도록 부산불교인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각사=김윤경 통신원

총지종보 인터넷 뉴스(www.chongjinews.com)

<멈추어라 세상은 아름답다>

하영진법사의 반야심경 해석

인간의 고통과 해결책을 제시한 하영진 법사의 반야심경 해설서



펴낸곳: 도서출판 생각더하기
가격: 12,000원

45년의 설법여정 동안 부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고통에서의 해방, 고통의 완전한 소멸이 아니었을까? 본인의 문제의식의 출발도 고통에 대한 자각이었고 6년간의 고행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었던 만큼 그에게서서의 깨달음이란 사실 이것에 대한 해답이었으리라.

고통이란 것이 지금의 나의 상황, 지금의 나를 둘러싼 세상의 모습에 대한 진단이라면 그것의 소멸이란 나의 상황과, 세상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2500년이 넘게 지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때와 다른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상환경은 그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는가? 선뜻 그렇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기 힘들 듯 하다. 그렇다면 냉정히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와 우리와 세상에 어떤 변화와 의미를 가져다 주었는가? 이렇게 물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때때로 허무해지고 때때로 무력감을 이길 수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처님은 문제를 자각했을 때도 아무런 망설임 없이 몸을 일으켜 섰고 그 문제를 풀었을 때도 아집없이 나누셨다.

붓다는 여여 한 모습 그대로를 보이셨을 뿐이고 고통에서의 완전한 해방, 정토의 완벽한 실현이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 낸 또 하나의 허구인지도 모른다. 또한 붓다의 여여함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이 글이 시작된 동기다.

그러므로 먼저 중생이 고통 속에 있다는 전제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부터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대승불교의 반야부계통의 경전 중에 가장 간결하면서도 친숙한 『반야심경(Prajnaparamita hrdaya-sutra)』을 해석하면서 그 속에 고통과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반야심경』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간결하면서도 그 논증적 구조가 가장 선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덧붙이자면 초기불교사상과 대승불교의 공 사상의 완벽한 논리적 연결을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작업은 서양철학에서의 여러 논의구조들과 철학자들의 사상을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적 사고와 고인의 구조와 비교하고 대조해보게 될 것이다. 불교경전 해석에 서양철학적 사유구조와 굳이 대조를 피하는 이유는 첫째, 인간이라는 공통성 속에 사유방식이나 해답을 찾아나가는 방향은 다르지 몰라도 고민과 문제의식은 같을 수 밖에 없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며 둘째, 우리가 비록 오래 전 전혀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텍스트를 보고 있더라도 이해와 소통의 장이 형성되는 현재는 거의 모두 서구적 용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다.

불교가 서구에 소개된 것은 200년이 채 되지 못한다. 그러나 성과는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시적 성과가 반드시 이해의 정확함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 실질적 내용이 과연 타당한지의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의 확인을 이 글에서 시도해 보고자 한다.

불교의 선정 45

생활 중의 정념 3

직장에서의 정념 수행

화령 정사 / 철학박사 중앙교육원장



일반적으로 특별히 정해 놓고 하는 수행기간 중에는 일정한 시간표를 마련해 놓는 것이 좋다. 언제 일어나서 언제 좌선을 하고 언제 밥을 먹으며 잠을 잘지 등에 대해서 시간을 정해 놓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러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수행을 하는 것은 하루 중의 모든 행위가 수행과 연결되어야 한다. 시간과 장소를 가릴 것 없이 항상 정념을 염두에 두고 생활한다면 그것 자체로 수행이 된다. '시시불공, 처처불공(時時佛供, 處處佛供)'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일상생활에서나 일을 하는 중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 그러한 상황들이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하기도 하고 불쾌하게도 하며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안정부절하게도 만든다.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정념이 없으면 그러한 감정들이 원인이 되어 우리에게 탐진치의 삼독이 생겨난다.

우리를 기쁘거나 즐겁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욕심을 낼 거고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화를 낼 것이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정념을 지니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이 번뇌가 되어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게 되면서 결국은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념을 지니고 그러한 감정의 동요를 관조하게 되면 번뇌를 다스릴 수 있고 탐진치에 의한 악업의 축적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정념으로 이를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욕을 하거나 거친 행동을 하게 되고 적대적인 태도로 주위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되고 인간관계도 엉망이 되어버릴 뿐만 아니라 일 자체도 목표한 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된다.

직장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여 번뇌를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불행을 야기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항상 정념이 필요하다.

정념은 우리로 하여금 눈앞의 현실에 대하여 항

상 마음을 기울이게 하기 때문에 특히 일을 할 때에 더욱 필요하다. 잠깐 정신줄을 놓는 사이에 숫자를 잘못 쓰거나 기계를 망칠 수도 있다.

이런바 안전사고라는 것도 깜빡 정신줄을 놓는 사이에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몸을 다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한다. 정념을 지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것으로 선가에서 말하는 '정전백수자(庭前栢樹子·뜰앞의 자)'가 바로 그런 의미이다.

적당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행을 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다. 그러나 정념의 수행은 반드시 고정된 시간, 편안한 장소에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수행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항상 마음을 놓지 말고 정념으로 살피며 그것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듣거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화

이 텔레비전 앞에 앉거나 휴대폰을 들고 게임을 하기도 한다.

가끔은 차를 몰고 관광지나 휴양지를 찾아 나서지만 꼭 막힌 도로에서 불평만 늘어놓다가 녹초가 되어 어느새 그 짧은 시간을 다 써버린다.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을 더 가지기를 원하지만 정작 그러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유용하게 쓸지를 몰라 허둥대다가 다 날려버린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돈과 권력, 명예 등에 집착하면서 늘 헛된 꿈을 좇느라 현재를 살피지 못한다. 그러한 것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술이나 오락, 도박 등에 자신의 시간을 다 써버리기도 한다.

일을 할 때도 자신의 일이 아니라 남에게 종속되어 다른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가족을 돌보는 것도 자기에게 주어진 부담으로 생각한

그 시간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그 시간을 통하여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돌보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그 시간은 온전히 자기의 것이 되며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을 망각하고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을 힘들어 한다.

예를 들어, 퇴근 후에 애들이 같이 놀아달라고 해도 "힘들어, 피곤해, 저리가!" 하면서 애들을 밀쳐낸다. 그리고는 정작 자신은 '내가 이러는 것도 다 너희들을 위해서야.' 하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하다가 애들이 다 커버린 뒤에야 그 시간을 즐기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

그런 식으로 멀어진 아이들이 사춘기가 지나고 성장하게 되면 부모들과의 소통이 어렵게 되고 부모는 내가 그 시절 너와 함께 하지도 못하면서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는다. 어린 시절의 소통의 부재가 불효로 이어진다는 것

에 정념을 쏟게 되면 시간에 자기가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바쁘다는 핑계로 밥을 먹으면서 귀로는 텔레비전 소리를 듣고 눈으로는 신문을 읽는다. 자기는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것처럼 착각이 들지만 사실은 어느 하나도 온전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념에 마음을 기울이면 일할 때는 거기에 충실하고 쉴 때에도 다른 생각으로 변민하지 않고 충분히 쉴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할 때에는 노는 것을 생각하고 정작 놀 때에는 또 일에 신경이 쓰여 즐기지도 못하는 모순된 삶을 산다.

불자들은 정념 수행이라는 훌륭한 수행법을 가지고 있다. 정념 수행은 출가와 재가를 떠나서 불자라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며 하루를 온전한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정념을 통하여 항상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봄으로써 현재에 충실할 수 있고 자기의 일을 즐길 수 있게 되며 모든 시간을 온전한 자기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 사람의 운세가 바뀌는 것도 마음이 변해야 가능하다.

정념을 통하여 자기 컨트롤이 완전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며 괴로움을 벗어나 열반에 이르는 길을 닦는 것이 된다. 진정한 행복은 돈을 많이 벌고 아니고, 혹은 권력을 누리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념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충실하며 모든 시간을 온전한 자기의 것으로 삼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항상 정념을 놓지 않는 사람은 외부의 헛된 꿈을 좇아 자신을 고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로 봄으로써 우주의 진리를 체득하고 삶의 원리를 발견하며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라도 가만히 멈추어 서서 자신을 바라보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며 학대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정념은 잃어버린 자신의 시간과 삶, 그리고 행복을 찾아줄 유일한 도구이며 수단이다.

일과 생활의 시시각각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간주한다면
우리는 무한한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가 나타라도 정념으로 자기의 마음 상태를 관조하면 쓸 데 없이 일을 더 그르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으며 오히려 그러한 기회를 자기 발전의 토대로 삼을 수 있다.

정념으로 현재를 살아가

현대인들은 늘 바쁘게 살면서 시간에 끌려 다닌다. 스스로 택한 삶이면서도 항상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닌다. 과학문명은 발달했지만 사람들은 더욱 바빠지고 있다. 돈을 버는 것도 결국은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발버둥 친다.

그러다가 정작 시간을 얻게 되면 아무 생각 없

다. 일과 생활이 나에게 주어진 집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이 끝나거든 보자라든지 애들이 다 크거든 보자는 식으로 현재를 망각하고 현재가 자기에게 고 통스러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미래를 기대한다.

그렇게 늘 현재에 불만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는가?

그렇지만 일과 생활의 시시각각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간주한다면 우리는 무한한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일을 할 때도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고 심취하여 수행한다면 그 시간은 온전한 자기의 시간이 된다.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일에 집중하여 정념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수행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하여 일을 완성했을 때의 만족감은 우리를 기쁘게 한다.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도

을 알지 못하고 시대를 탓하며 자식들을 원망하지만 실은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결과이다.

이런 사태들이 다 현재의 자기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정념을 지니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산다면 그 시간은 온전히 자기의 것이 되며 순간순간을 충실하고 보람되게 보내는 것이 된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돈 때문에 마지못해 한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일들이 즐겁고 그 시간이 행복할 수가 없다. 마음이 다른 데에 가 있기 때문에 늘 불만이 생기게 되고 더 피곤하고 힘들어진다. 그러한 것이 가정에까지 연결되어 가정 생활조차도 불행의 구렁텅이가 되는 것이다.

일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항상 현재

나를 돌아보는 수행인의 길잡이!
불교수행의 길에 처음으로 들어선 불자들의 필독서

초발심자경문

· 제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 ·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 자경문(自警文)

- ✓쉬운 번역!
- ✓간결한 표현!
- ✓읽기 쉬운 원문!

“《초발심자경문》은 불교수행의 길에 들어선 초심자뿐만 아니라 입문한 지 오래된 전문수행자도 자신을 살피기 위하여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머릿말 중에서-



화령 번역 / 불교총지중 법장원 발행
정가12,000원 / 169쪽

창원 수산자비선원 야천당 수산(법상)스님과 함께 하는 제3회 불교인을 위한 단합대회 및 12회 경로위안잔치 개최

1월 6일 수요일 1시~4시, KBS 창원홀...1500여 사부대중 참가



▲ 경로잔치 공연장면

(사단법인)창원 수산자비 선원의 주지 수산(법상) 스님과 함께하는 제3회 불교인을 위한 단합대회 및 제12회 경로위안잔치가 1월 6일 오후 1시 KBS창원홀에서 1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창원 수산자비선원이 주최하고 산하시설인 자비요양병원, 명곡한의원, 자비마을에서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대흥사 도성스님(전 대흥사 해인사 주지)을 비롯 가산스님(대각교단 총재), 월인 종정스님(종정협의회 이사장) 등 100여명의 스님들과 박성호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백민경 MC의 사회로 인기 가수 김성희의 ‘코스모스 피어있는길’을 비롯 불자가수 범만 스님과 평양 예술단이 출연했으며, 대한가수협회 창원시지부 한모민의 가수들이 공연했다.

창원 수산자비선원 주지 법상스님은 “올해에도 제3회 불교인을 위한 단합대회및 제12회 경로위안잔치에 함께해주신 도성 큰스님과 가산 큰스님, 월인 큰스님을 비롯하여 지우 큰스님, 범만 큰스님등 전국 각처에서 동참해주신 큰스님들과 사부대중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3년전부터 우리불교가 날로 쇠퇴하는것을 볼 수만 없어 이 행사를 매년 열고 있습니다. 법회를 통하여 우리 불자들에게 법을 전달하고 불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불교가 번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오늘 특별초대가수 김상희님의 ‘코스코스 피어있는길’을 들으시고, 새봄을 기다려 봅시다. 또 평양예술단의 특별공연을 보며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매년 여러분들과 변함없이 좋은사람자리로 옆에 있어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가산스님은 법어에서 “수산 법상스님이 불교인을 위한 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그냥 한다고 한다”며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그냥 무주상보시로 경로잔치를 하는 그 마음이 불교이다.”고 말했다.

월인스님은 축사에서 조선 중종때의 일화를 전하며 “집에 가서서 어른과 조상을



▲ 개막법회 (KBS 창원홀)

잘 모시면 복이 온다는 말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상 스님은 “갈 곳 없고 병든 사람들은 모두 부처님 품안으로 오세요”라는 모토로 임하고 있다. 스님은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의 격하, 역할 상실, 경제적 빈곤, 건강악화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 소외와 고독감 등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는 점을 감안해 무의탁 노인들에게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보금자리나 병원시설을 제공해 주며 부처님의 자비와 봉사의 참의미를 실천해 오고 있다.

현재 100병상 노인요양병원과 명곡 한의원, 노인장기요양시설 자비마을 운영에 이어 창원 도계동에 ‘29병상’의 자비 의원을 개원했다.

스님은 수산자비선원에서 월~토요일까지 하루 약 200~250명의 점심 무료급식을 하고 있으며, 사찰내 요양시설인 자비마을이 있는데 치매, 중풍 등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이 보살핌을 받고 있다. 또한 별도의 건물을 매입해 마련한 자비마을에 는 거동이 가능한 노인보 30여명을 수용하고 있다. 스님은 요양병원과 명곡한의원도 개원했다.

2006년 8월에 개원한 자비 요양병원은 100개의 병상을 확보하고 내과, 가정의학과, 신경 정형외과, 물리 재활치료 등 중풍이나 치매, 당뇨, 말기 중증질환, 노인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치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055)277-7626

황칠명인 구영국 장인 한국에만 자라는 황칠나무로 작품만들어

“진시황제 사신 서복이 제주 한라산서 찾던 불로초가 황칠나무”



“황칠은 2200여년전 진시황이 찾았던 불로초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고유수종 황칠나무에서 뽑아낸 약재 겸 도료입니다. 가치에 비해 너무 작게 호평되고 있는 ‘황칠(黃漆)’은 한국의 남해안과 제주에서만 자라는 토종수종으로 가치가 높습니다”

세계무형문화재 황칠기능보유자이며 대통령 문화예술 자문위원인 황칠명인 구영국 장인(세계황칠협회장)은 한국에만 자라는 황칠나무로 작품을 만드는 세계 유일의 전통공예를 하고 있다.

황칠은 전통적으로 가구의 도료나 금속, 가죽의 도료로 사용되어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귀한 공예재료의 하나이다.

황칠명인 구영국 선생은 “황칠은 정신을 안정시키는 향을 발산하고 도료와 염료, 전자파흡수 등에서 탁월한 특성을 나타내어 앞으로 개발의 소지가 많은 식물”이라며 “찬란한 황금 빛을 내는데다 은은한 안식향을 풍기기 때문에 대대로 귀하게 쓰였으나 구하기가 힘들고 그 채취나 정제법이 까다롭다”고 말했다.

이어 “도료분야에서의 황칠은 투명 한 황금색을 자아내면서 목재는 물론 금속에 강한 접착력을 지니면서 내열성 및 방습성이 뛰어나다”며 “우리 선조들이



가꾸고 적용한 황칠은 앞으로 여러 분야에 밝은 전망이 있으 며 이를 위해 더욱 깊은 연구가 필요 하다”고 밝혔다.

구선생은 “그러나 황칠은 서민의 약과 도료가 아닌 가진자 (황제, 왕족, 부호)의 전유물이기에 우리나라 일반 백성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과거 중국의 무리한 진상 요구에 고통받던 백성들은 구멍을 뚫거나 몰래 도끼로 찍어 일부러 황칠나무를 고사 시켰다는 얘기도 전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런 만큼 과거 삼국시대 중국과의 교역물품 중에서 가장 고가의 상품도 바로 황칠이었다.

국제학명은 만병통치약을 뜻하는 덴드로 파낙스(Dendro-panax)이다. 드릅나무과에 속하는 상록활엽교목으로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남부해안 지역과 제주도에서만 자생하는 한국의 고유수종이다.

역사적 내용을 살펴보면 삼국사기, 해동역사, 임원십육지 등의 문헌에서도 우리 선조들이 발견해낸 우수한 칠 재료 중에 하나로 기술하고 있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황칠나무에서 얻어지는 안식향은 반열제거, 술해독, 안질 및 황달, 나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효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황칠의 약효를 살려 몸의 자연치유력 활성화를 돕는 황칠 식품도 출시되고 있다.

(주)천황칠(대표이사 장지원)에서는 일동생활건강과 손을 잡고 일동 秀天 黃漆을 내놓고 어린이 황칠, 황칠 비누, 황칠차 음료등의 제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 전화문의 _ 불교총지중 통리원 02) 552-1080
각 사찰 주교님께 문의하셔도 구입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_ 우리은행 1005-480-047811
(제) 불교총지중 유지재단

1. 만다라 세트 (금강계 만다라 +태장계 만다라) 33cm X 33cm (액자포함) 30,000원



태장계 만다라 _ 服藏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정확하게는 '대비 태장계 만다라'이다. 대일경에 근거해 그려진 이 만다라는 태아가 모태 속에서 생육되어 가는 것에 비유해 대일여래의 보리심이 모든 생성의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금강계 만다라 _ 金剛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서만다라'라고도 하는 이 만다라는 '금강정경'에 근거해 그려졌다. 중생이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2. 가정다라니 46cm X 27cm (액자포함) 27,000원



가정다라니

“한국불교 미래를 담보하는 청년불교 활성화 시급”

인력시스템 등 단위별 통합전략 절실...연구원 설립 및 대학전법 의제 마련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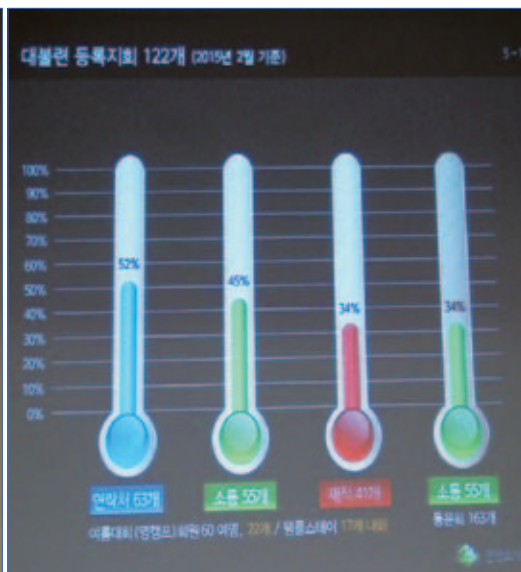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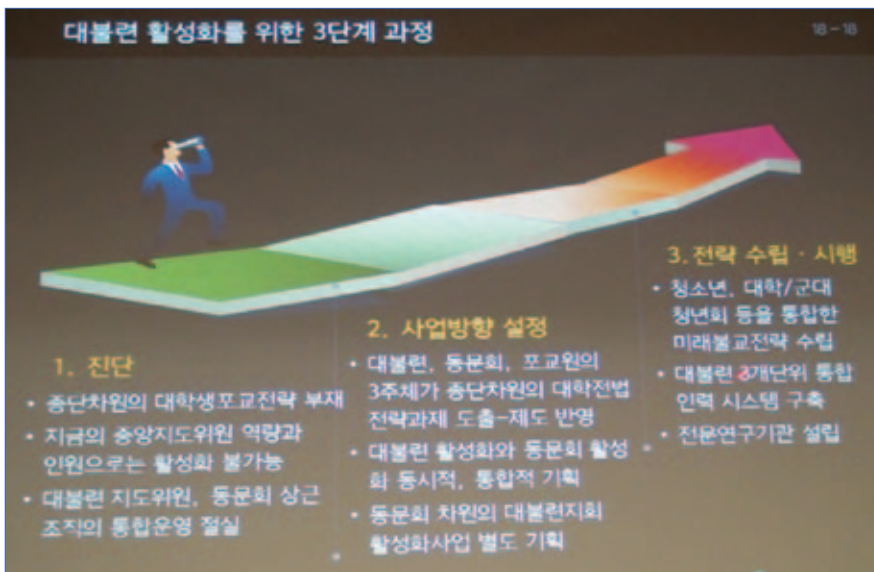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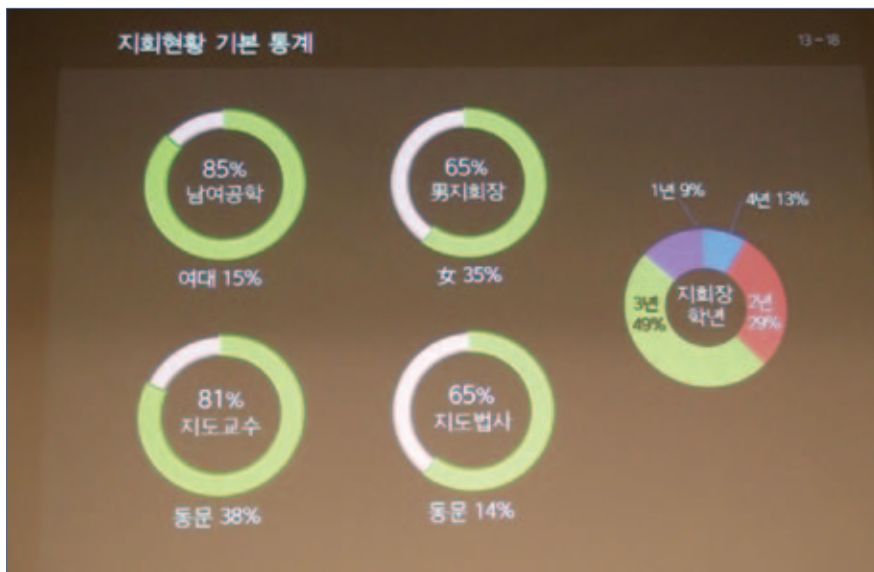
대불련총동문회, 대불련 설문조사 중간발표....80년도에 비해 대학 불교학생회 100~120여곳 사라져

한국불교 미래 청년불교 활성화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월 25일 열린 대불련총동문회 송년의 밤에서 콘텐츠개발연구원 이영철 원장은 캠퍼스 포교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프로젝트 중간보고를 통해 “80년대에 비해 100~120개 대학의 불교학생회가 사라졌다”며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해 사단법인 대불과 대불련 대불련총동문회 의 인력 시스템등 단위별 통합전략이 절실함”이라며 포교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관 설립 및 대불련과 총동문회, 포교원이 나서 대학 전범 의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철 원장은 이어 “현재 대학생 포교 전략이 없는 상태”라며 “대불련의 경우 지도위원장과 지도위원 2명의 중앙역량으로는 대불련 활성화가 불가능 하다. 동문회가 활성화방안을 같이 마련해야 한다.” “대불련과 동문회가 조직구상을 통합적 관점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했다.

콘텐츠개발연구원이 48개대학 불교
학생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신입생 교육은 31%가 하고 있으며, 평균 6.5



명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회는 85%가 개최한다고 답했으며, 평균 9.1명씩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문회와 공동으로 본다는 곳이 71%였다.

중앙조직과 연대행사인 여름캠프인 영캠프 불참률은 54%였으며, 템플스테이 불참률도 61%, 총회 불참 41%나 됐다.

재학생들은 불교학생회 동문회가 31개 지회에서 잘되고 있다(61%)고 응답 했으며,

51%가 교류가 미진하며 21%는 적극 참여하는등 교류가 활성화 되어 있다고 답했다.

동문회의 지원은 취업을 위한 간담회 61%, 자기 소개서 작성등에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본부에 원하는 것은 신규콘텐츠
지원과 운영비 지원, 홍보물지원, 중앙
재정내역 공개, 중앙회비 축소 순이었다.

한편 대불련총동문회는 대불련 활성화를 위한 '캠퍼스 포교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프로젝트 수행업체로 공모를 통해 콘텐츠개발연구원이 선정되었으며, 9월에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내년 1월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백효흠 총동문회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대불련총동문회가 지난 2년간 대불련 발전위원회를 통해 대불련과 함께 진행

했던 “대불련 역량강화를 통한 캠퍼스포교 활성화와 기반조성”을 위한 토론회 및 워크숍에서 도출된 결과물들을 실천하는 1단계 사업이며 캠퍼스포교는 대불련인의 시대적 소명으로 이번 공모 사업의 결과물들이 대불련을 통해 캠퍼스 포교현장에서 적극 활용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결과물 활성화 지원사업을 2단계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희장은 “대불련총동 문화도 기존의 신행활동 중심에서 벗어나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대불련의 미래비전과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 지원하기 위해 ‘캠퍼스포교전락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대불련의 역량강화를 위한 동등역량 결집을 제우선 사업으로 매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임 박태우 회장 취임

에서 진행된 제 54년차 대불련 회장 선거를 통해 박태우 법우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이·취임식을 병행하였다.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대불련 회장 이·취임식은 연꽃등 공모전 시상식, 영상편지 상영, 53년차 회장 이임사, 54년차 회장 취임사, 중앙집행위원 임명, 대불련 지도 위원장 인사, 대불련 총동문화 백효흠 회장과 대불청 전주초 회장의 축사, 기념 사진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사별된 지부장, 사회자, 졸업 동문 등 100여명의 대중이 함께하였다.

54년차 박태우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법우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연을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경험인지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다른 범우들에게 경험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열정적으로 대불련 활동을 했기에 대불련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겼고, 현재의 대불련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대불련이 더 성장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것이다. 범우님을 께서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것 이상의 2016년 대불련 활동을 만들 수 있는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불련은 이·취임식 후에 조계종 기획실장 일감스님을 모시고 스님의 책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을 가지고 북콘서트 를 진행하였다.

“대불련 활성화와 복원...프로젝트 내년 시행”

대불련총동문회 송년의 밤 개최, 대불련장학금 3100만원 전달

15만 동문 결집위한 1차명부 2월 발간 (사)대불, 대불련, 총동문회 상호 보완관계 이룩

대불련 활성화와 복원에 대불련총동문이 적극나선다.

또 2천만원을 들여 공모사업 을 벌인 대불련활성화프로 젝트는 내년 2월 완성돼 시행에 나섬다. 15만 동문 결집위한 4000여명 1차명부도 2월에 발간 한다.

대불련 동문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임을 확인 하고 '열어갈 50년'을 위해
화합하는 자리를 만들기위한 2015년
대불련 동문 '송년의 밤'이 12월 25일(금)
오후 4시, 서울 을지로 은행연합회 2층

컨벤션홀에서 개최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백효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대불련은 올 한해 동국대 사태와 대중 공사들에 적극 참여하여 불교 발전에 이바지 했으며, 대불련 활성화와 복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사)대불 중심 대불련과 총동문화 상호 보완관계를 만들어 대불련 발전의 원전을 만들 더전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불련 학생들과 각 학교 불교동아리 에 장학금 3100만원이 전달 됐다.

일반장학금은 대구카톨릭대 윤동인, 서울 여자간호대 이명진, 전남대 김민걸, 성균관대 김남희, 공주교육대 한명준, 전북대 전대운, 제주대 김현주, 동아대 이예빈, 부경대 김종태, 덕성여대 김지연, 서강대 권민경, 숭실대 손경환 학생이다. 단체지원금 대상 단체는 강원대, 건국대 글로벌 캠퍼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진주교육대, 동덕여대, 이화 여대등 6개 학교이다.

취재 : 특별취재팀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일원 어린이집

- 맑고 밝은 어린이 · 자율적이며 더불어 함께 크는 어린이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린이 · 이웃, 나라,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

일원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 3길 21 ☎ 02.495-3221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 ‘화두’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3월 20일까지. 서울 중구 충무아트홀 대극장



▲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 언어? 감정? 사랑?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관객 모두에게 ‘인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여러분은 ‘인간’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배우들의 호연에 힘입어 재연임에도 공연 시간을 연장한 토종 창작뮤지컬의 힘을 맛볼 수 있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자.

“신을 믿어 지독하게. 하지만 그건 축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주를 통해서지. 만약 신이 없다면 누가 이 세상을 이런 지옥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주인공의 대사처럼 프랑켄슈타인의 배경은 암울한 전쟁이 지속되던 19세기 유럽이다. 나폴레옹 전쟁 당시 스위스 제네바 출신의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전쟁터에서 죽지 않는 군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실험은 늘 실패하고 좌절하던 빅터 앞에 신체접합술의 귀재 앙리 뒤프레가 나타난다. 빅터의 확고한 신념에 감명 받은 앙리는 그의 실험에 동참하지만 종전으로 ‘죽지 않는 군인’의 필요성이 사라지자 연구실은 폐쇄된다. 제네바로 돌아온 빅터와 앙리는 연구실을 프랑켄슈타인 성으로 옮겨 생명 창조 실험을 계속해 나간다.

빅터는 그토록 원하던 피조물을 창조하지만, 그는 빅터의 생각처럼 굴지 않고 사라져 버린다. 3년 후, 줄리아와의 결혼을 앞둔 빅터 앞에 괴물이 되어버린 피조물이 나타나고, 빅터는 생의 격렬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만다.

“교만한 창조주여, 그 동안 내가 겪은 세상을, 불행을 그대로 돌려주리라.”

괴물이 된 피조물은 빅터에게 이 말을 남기고 복수를 시작한다. 신이 되려 했던 인간과 인간을 동경했던 괴물의 이야기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인간’에의 화두를 던진다.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의 원작은 19세기 영국의 천재 여성작가 메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이다. 메리 셸리가 천재로 칭송되는 이유는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열아홉 살 나이에 완성해냈기 때문이다. 당시 상황과는 전혀 다른 미래적이고 과학적인 상상력으로 무장한 이 작품은 과학기술이 이기는 사회윤리적인 문제를 예리하게 짚어낸다.

주인공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생명에의 금급증을 과학으로 풀어내는 인물이다. 시체로 살아 움직이는 존재를 만들어낸 것. 하지만 이렇게 창조된 이는 외모가 흉측했고, 그 탓에 프랑켄슈타인을 저주하며 그의 주변인들을 살해하는 괴물이 되어 버린다.

작가는 괴물을 통해 인간이란 무엇인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은 어떤 파멸을 불러오는지 공포스럽게 보여준다.

죽음에서 생을 변주해내며 창조주가 되고 싶었으나 결국 인간일 수밖에 없었던 프랑켄슈타인. 사랑받고 싶었으나 사랑받지 못했기에 철저하게 창조주를 파괴할 수밖에 없었던 괴물. 선과 악의 양면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인간이 지닌 양면성으로도 느껴진다.

프랑켄슈타인이 던진 화두를 살펴보자.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는 어떠한가 할까. 불교는 먼저 인간이라는 존재의 중요성부터 강조한다. 부처님 탄생계를 보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세상에 나 홀로 존귀하다는 이 말은 오만함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제일로 삼는 불교의 정신을 드러낸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두가 불성을 가진 존귀한 존재인 것이다. 물론 세상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을 잊지 않는다. 하지만 왜 인간이라는 존재가 더욱 존귀한 것일까? 인간이 되면 부처가 될 수 있는 수행을 할 수 있고, 깨닫지 못한 자는 하늘의 신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를 설한다. 육도는 천, 인,



▲ 프랑켄슈타인 뮤지컬 중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의 여섯 단계이다. 축생이 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단계를 밟아나가기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가 축복인 것이다. 맹구부목(盲龜浮木)의 비유를 생각해보자.

망망대해에 구멍이 뚫린 나무가 떠다니고 있었다. 바다 안에는 100년에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는 눈먼 거북이가 산다. 이 거북이가 100년 만에 수면으로 올라올 때 마침 구멍이 뚫린 나무를 향해 올라와 구멍 속으로 머리를 내민다면? 이 엄청난 확률이 바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경우의 수다. 로또 맞기보다 어려운 이 희귀한 우연을 이뤄낸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다.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단지 우연이고 행운일까?

불교에서는 이때 인연법을 들어낸다. 선업을 쌓고 쌓아야 인간이 되는 것이다. 살생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고 등등 10선업을 쌓아야만 내생에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나 10선업을 잘 지키고 산다면 다음 생에 천국행은 따 놓은 당상이다.

어쨌든 이처럼 인간이 되기 어렵고, 인간이 되기 위한 천만 번의 인연이 무르익어야만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인데, 프랑켄슈타인이 만들어낸 괴물은 이 축복 받은 탄생의 과정을 철저하게 파괴당한 존재다. 때문에 그는 외롭다. 같이 인연 지어진 이가 아무도 없고, 그 스스로도 업과 인연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연이라고 연결된 이는 오로지 빅터뿐. 그래서



괴물은 처절하게 유린당한 자신의 삶에 대한 복수로 살인을, 그것도 빅터가 사랑하고, 빅터를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을 해치는 것으로 실행한다.

세상으로부터 단절 된다는 것. 괴물은 탄생에서부터 축복받지 못했고,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무언가로 취급받으며 모질게 살아왔다. 괴물의 신체가 되어준 양리가 죽기 전에 지었고 쌓았던 모든 업들은 괴물에게 이어지지 않는다. 그는 그저 패악무도한 존재였고, 신을 신봉했던 이들에겐 저주였다.

괴물은 이렇게 말한다. “제가 청했습니까, 창조주여, 흙으로 나를 인간으로 빚어달라고? 제가 애원했습니까, 어둠에서 끌어올려달라고?” 영면에 들어야할 시체를 일으켜 세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빅터는 그를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인간 존재의 가장 밑바닥에는 사랑의 욕구가 있다.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세상에 태어나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커서 연인이 생기고, 자식이 생기면 사랑을 쏟아 붓는다.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이다. 괴물은 이러한 기본 욕구를 채울 방법을 빼앗긴 채 타의로 인해 생명을 얻는다.

불교에서는 자타불이를 말한다. 타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요, 나의 행복이 너의 행복이고, 너가 행복해야 나 또한 행복해진다. 괴물이 할 수 없었던, 그가 인간일 수 없었던 이유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주위를 둘러봐. 너 이제 혼자 되는 거야. 혼자자

된다는 슬픔. 빅터, 이해하겠어? 이게 나의 복수야!”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건, 나와 함께 호흡하는 너가 있기 때문이다. 처절하게 혼자였던 괴물은 빅터의 주변인들을 제거하는 것을 통해 빅터에게 자신의 고통을 일깨운다. 괴물이 설명하는 복수의 이유는 바로 인간의 조건이자 화두의 해결책이다. 더불어 사는 삶, 자타불이성불도로 이어질 불자의 삶, 종교를 초월해 누구나 추구하는 삶. 더불어 함께 하는 기회를 빼앗기면 인간이 아니라는 걸, 괴물은 온 삶을 통해 절규해낸다.

‘2014 더뮤지컬어워즈’ 10개 부문 노미네이트, 9개 부문 수상, 올해의 뮤지컬, 올해의 창작뮤지컬, 남우주연상, 여우신인상, 연출상, 음악감독상, 무대상, 의상상, 음향상, ‘2014 SMF 예그린어워드’ 흥행상, 스태프가 뽑은 배우상 수상, 2015 이데일리 문화대상’ 대상, 뮤지컬부문 최우수상 수상, 제14회 대한민국 국회대상’ 뮤지컬상 수상이란 대단한 기록을 세운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초연에 이은 재연에서도 유준상, 박은태 등 초연 배우들이 출연하고 박건형, 최우혁 등이 새로 합류해 극을 더욱 풍성하게 이끌어간다. 출연 배우 모두가 1인2역을 소화한 것은 프랑켄슈타인만의 매력. 인간의 욕심과 나약함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재미와 감동도 느낄 수 있다.

공연은 3월 20일까지. 서울 중구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린다. 오페라 글라스가 필요하다면 1층 물품보관소 옆에서 빌리면 된다.

강지연 구성작가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서초구립
포레스타 7단지 어린이집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로 11길 7-12 708동 1층 / ☎ 070-7204-2030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바라밀 공부방

청소년들의 활기찬 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051)552-0705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천사 주교)

밀교연재

깨달음의 세계 · 불보살의 도량,
법경정사의 만다라 이야기 (24)

금강계 만다라의 성신회(成身會) · 갈마회(羯磨會)

금강계만다라는 9회(會)로 이루어진 만다라 인데, 그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성신회(成身會)다. 9회 가운데 제일 중앙에 자리잡고 있다.

금강계만다라는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수행의 과정과 이미 깨달음을 이룬 후에 일체중생을 제도코자 하는 교화의 과정으로 묘사된다. 즉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앞의 것을 상전문(上轉門)이라 하고 뒤의 것을 하전문(下轉門)이라 한다. 불(佛)의 경지로 나아가므로 상전문(上轉門)이며, 불(佛)에서 중생을 향하는 것이므로 하전문(下轉門)이다. 다시 상전문(上轉門)을 향상문(向上門), 하전문(下轉門)을 향하문(向下門)이라 한다. 위로 향하는 것은 곧 불(佛)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므로 향상문(向上門)이고, 아래로 향하는 것은 곧 중생을 향해 활동하는 것이므로 향하문(向下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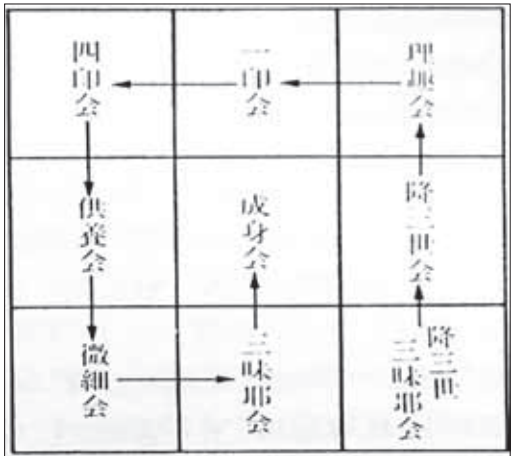
성신회(成身會)는 중생이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수행 과정이고, 갈마회(羯磨會)는 깨달음을 이룬 뒤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나타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성신회(成身會)는 이미 깨달음을 이룬 모습, 즉 부처가 된 경지를 뜻한다. 그래서 성신회(成身會) 다. '불신(佛身)을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이들 상전문(上轉門)이라 한다.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중앙의 성신회가 이미 깨달음을 이룬 상태에서 깨달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중생을 위하여 교화하는 활동을 나타낸다. 그래서 갈마회(羯磨會)라 한다. 즉 깨달음의 활동과 전계를 의미하므로 갈마회(羯磨會)다.

향상문은 그림1)과 같이 중생이 수행을 통하여 오른쪽 하단의 향삼세삼매야회에서부터 시작하여 향삼세회→이취회 →일인회→사인회→공양회→미세회→삼매야회를 거쳐 마지막으로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깨달음의 세계인 성신회에 이르게 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으로 중생이 부처되는 여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향하문은 그림2)와 같이 향상문의 역순으로, 중앙의 갈마회에서 시작하여 아래의 삼매야회를 거쳐 미세회→공양회→사인회→일인회→이취회→향삼세회→향삼세삼매야회에 이르게 된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으로 부처가



▲ 그림1) 금강계만다라의 상전문[향상문]

중생을 제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성신회(成身會)는 곧 갈마회(羯磨會)이기도 하다. 깨달음[佛]을 의미할 때는 성신회(成身會)이고, 교화활동을 나타낼 때는 갈마회(羯磨會)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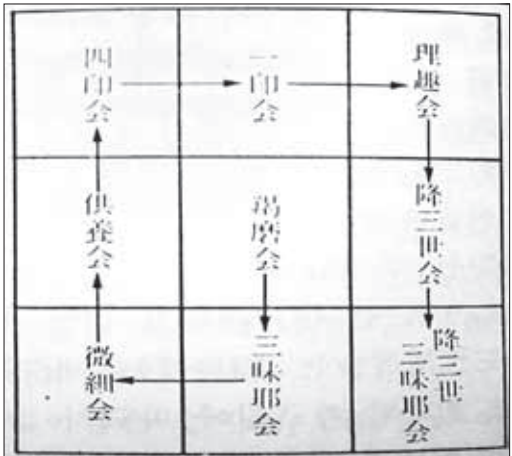
그런고로 중앙의 성신회와 갈마회는 깨달음 으로 향하는 것과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다르지 않으며 공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대승불교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신회(成身會)·갈마회(羯磨會)를 근본회(根本會) 라고도 한다.

성신회(成身會)는 금강계만다라를 대표하며, 오상(五相)의 관(觀)을 행하여 금강계대일여래의 몸을 성취하는 것이다.

성신회는 일체의성취보살(一切義成就菩薩)이 오상성신관(五相成身觀)을 닦아 금강계대일여래의 몸[身]을 성취한 것을 나타내고, 갈마회는 대일여래가 얻은 깨달음의 활동과 전계를 나타내며, 근본회는 금강계만다라의 중심임을 나타낸다. 여기서 일체의성취보살은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보살을 의미하는데, 부처되기 전의 수행보살을 가리키는 것으로, 출가 전의 석존의 이름을 말한다. 곧 신타르타(siddha-artha)를 가리킨다.

오상성신(五相成身)은 오상(五相)의 관(觀)을 행하여 금강계대일여래의 몸을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 즉 깨달음[佛身]을 이루기 위한 다섯 가지의 수행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밀교의 금강계법(金剛界法)에 의하여 통달보리심(通達菩提心), 수보리심(修菩提心),



▲ 그림2) 금강계만다라의 하전문[향하문]

성금강심(成金剛心), 증금강신(證金剛身), 불신원만(佛身圓滿)의 오상(五相)을 관하여 범부의 몸 그대로 본존(本尊)의 몸이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즉신성불(即身成佛)을 한다. 몸과 마음이 본존과 일체불이(一切不二)를 이루는 것이다.

성신회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림3)과 같이 큰 원[大圓輪]과 중간 원[中圓輪], 작은 원[小圓輪]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구성을 보면, 큰 원 안에 중앙과 동서남북으로 다섯 개의 중간 크기의 원[中圓輪]이 있고, 그 다섯 개의 중간 원 안에는 다시 중앙과 동서남북으로 다섯 개의 작은 원들이 각각 들어 있다. 작은 원 안에 불보살의 존상(尊像)들이 그려져 있는데, 모두 25존이 묘사져 있다. 그리고 큰 원의 외곽 둘레에는 팔방으로 작은 원이 8개 있는데 여기에도 보살이 존상이 그려져 있다. 모두 8보살이다. 또 중간 원의 동서남북 사이에 4개의 작은 원이 있는데, 그 속에도 4보살의 존상이 그려져 있다. 12보살과 앞의 25존을 모두 합하면 37존이 된다. 금강계만다라의 중심이 되는 존이 37존이다. 37존에 예경하고 의식을 행하기도 하는데, 이를 '금강계 삼십칠존례(金剛界 三十七尊禮)'라 한다. 진각종에서는 법회를 올릴 때마다 이 금강계 37존을 청명한다. 또 진각종의 상징마크인 대일상(大日相)은 바로 금강계만다라의 원륜상(圓輪相)을 나타낸다. 그림3)과 같이 성신회의 대중(大中)의 원륜(圓輪)을 형상화한 것이다.

대중소(大中小)의 원륜(圓輪) 가운데 대원륜(大圓輪)은 대금강륜(大金剛輪)이라 하며 오불(五佛)의 주거처인 보루각(寶樓閣)을 나타낸다. 오불(五佛)이 계시는 곳이다. 그 가운데 중앙의 비로자나부처님이 계시는 곳이 금강계궁

(金剛界宮)이다.

다섯 개의 중원륜(中圓輪)은 오해탈륜(五解脫輪)이라고도 하며, 작은 원인 소원륜(小圓輪)은 흔히 월륜(月輪)이라고 하는데, 이 월륜(月輪) 속에 존상(尊像)들이 그려져 있다. 이를 관하는 것이 월륜관(月輪觀)이다. 월륜 속에 존상(尊像)을 그려 넣기도 하고, 또 진언종자(眞言種子)를 넣기도 한다. 이를 월륜의 종자관(種子觀)이라 한다.

대중소(大中小)의 원(圓)은 단순한 원이 아니라 깨달음의 지혜와 해탈을 의미한다.

작은 원[小圓輪]의 월륜(月輪) 속에는 불보살을 배치하는데, 중심되는 불보살이 바로 비로자나불을 비롯한 오불(五佛)이다. 오불은 부처님의 다섯 가지 지혜를 상징한 것이다. 이 지혜에 의해서 해탈(解脫)을 얻는다. 즉 대원륜(大圓輪)은 지혜를 나타내고, 중원륜(中圓輪)은 해탈을 의미하며, 소원륜(小圓輪)은 불보살 그 자체를 의미한다. 즉

깨달음과 수행을 상징한다.

금강계만다라의 성신회(成身會)는 37존을 비롯하여 헌겁천불(賢劫千佛), 지수화풍의 사대신(四大神), 이십천(二十天)이 배치되어 있는데, 불보살의 세계와 제천(諸天)의 외호(外護)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성신회를 가리켜서 금강계만다라(金剛界曼荼羅)라 부르기도 한다. 금강계만다라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만다라를 친견하고 관(觀)하는 것이 밀교 수행 가운데 하나다. 만다라를 통하여 불신원만(佛身圓滿)하기를 서원한다.

〈다음호에서 금강계만다라의 삼매야회(三昧耶會)에 대해 살펴본다〉



▲ 그림3) 금강계만다라의 성신회(成身會) - 흰 박스 안-

각종 축원(祝願)을 위한

『발원문 및 법문집』

“화도방편(化度方便) 가운데 제일이 불공이며,
불공 가운데 으뜸이 간절한 발원과 여법한 법문이다”

“발원문과 법문은 법향(法香)이나 감로수(甘露水)와 같은 것으로, 망자(亡者)와
생자(生者) 모두를 청정일념(淸淨一念)에 들게 하는 중요한 의식이다”

편찬 : 불교 총지중 밀교연구소(비매품) / 발행 : 불교 총지중
인쇄 : 동림기획 / 면수 : 총 258쪽

『각종 불공 발원문 및 법문집』에는 새해 불공 발원문을 비롯하여 각종 서원성취 불공, 결혼, 출산, 생일, 기제불공 등 총 30여 종의 축원불공 관련 발원문과 법문이 수록되어 있다.

유 물 로 보 는
비로자나불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04호
의성장춘리비로자나석불좌상
(義城長春里毘盧舍那石佛坐像)
소재지 : 경북 의성군 비안면 장춘2길 118 (장춘리)
시대 : 고려시대



◀문화재자료 제304호
의성장춘리비로자나석불좌상

현재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에 있는 석조불상이다.

등근 대좌(臺座) 위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두 눈은 깊게 파여져 있는 상태이다. 손은 왼손 감지를 오른손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비로자나불을 형상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옷은 왼쪽 어깨를 드러낸 채 오른쪽 어깨에만 걸쳐 있다.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불상으로 추정된다.

자료제공=문화재청

VISUAL
불교총전

제80화

글/그림 정수일
cafe.daum.net/carissam

사법을 믿는 경우

정법을 믿는 경우

애야, 내가 곧 죽을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을! 제사장을 불러 신께 제사를 올리겠습니다.

애야, 내가 곧 죽을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을! 제사장을 불러 신께 제사를 올리겠습니다.

폐하! 말, 염소, 돼지 백 마리를 잡아 신께 제사를 올리면 대비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럴담 일론 행하라.

폐하! 당장 말, 염소, 돼지 백 마리를 잡아 신께 제사를 올리까요?

그래야겠지? 법인카드를 주지.

신이시여, 대비마마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제물을 100마리나 올렸으니 금방 나오시겠지?

왕이시여, 만약 곡식을 수확하려면 어찌 해야 하겠소?

부처님! 그야, 몸에 싸앗을 뿌려압죠.

대비마마, 신께서 마시고 난 신성한 제물의 생피를 마시면 더욱 빨리 나으실 겁니다.

그래? 그럴담 원샷을 해야지.

왕께선 대비마마를 오래 살게 하고 싶나요?

물론입죠! 그래서 제물을 100마리나 잡아 올릴까 합니다.

내 뱃속에 기생충이 많아 아파 몸이 더 아플 거다.

애야, 난 간다.부디 산 목숨 죽여 오래 살길 바라지 말고 저 제사장 찔라라.

오래 살길 원하면 살생의 업을 짓지 말아야 하거늘, 산 목숨을 백 마리나 잡으려 하다니!

그, 그런가음? 반성할게요.

어머니!

크헉!

제사장 찔라.

현혹되지 마세용!

내용참조: "불교총전" 수도편 107p



관세음보살
42수(手) 진언

21. 자련화수(紫蓮華手) 진언



옴 사라사라 바라 가라 흠 바탁
시방의 일체 제물을 뵈고자 하면 이 진언을 외우라



화령 편역 | 불교총지중 법장원 발행
정가 15,000원 | 법보시가 8,000원 (10권 이상)

이 책을 읽으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저절로!!!

관세음보살 예찬문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온화하신 자비 광명 온누리 비추시네
무명 중생 괴로움 모두 살피사 빠짐없이 골고루 건져주시네”



- 관세음보살은 누구인가?
- 관음경
- 천수경
- 신묘장구대다라니해설
- 관세음보살 관련 각종 진언
- 옴마니반메흠의 의미와 수행법

불교서적
에세이

박범신

비우니 향기롭다

비우니 향기롭다

박범신 / 랜덤하우스중앙 / 9천5백원

한여름에 지리산 천왕봉을 올랐습니다. 땀이 빗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짐도 무거웠습니다. 산에서 아주 살림을 차릴 것처럼 쌀이며 감자며 잔득 든 배낭은 어깨를 짓누르고 산은 가파르고 지옥이 있다면 아마도 이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누구를 맞출 수도 없었습니다. 대책 없이 집을 꾸린 것도 나 자신이고, 한여름에 천왕봉을 오르기로 결정한 어리석은 인간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묵묵히 오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괴롭게 오르다가 문득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괴로운 이유는, 마음은 어서 빨리 올라가 쉬고 싶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그 간극 때문이었습니다. 간극을 좁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적지인 천왕봉까지 까마득하게 멀다는 현실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마음이었습니다. 빨리 올라가고 싶다는 그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빨리 올라가겠다는 마음에 저항하기라도 하듯 난 아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위빠사나의 경행처럼 그렇게 느릿느릿 걸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순식간에 평화롭고 고요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이날의 경험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이 8만4천 가지라고 하셨는데 등산도 그중 하나라는 것을.

박범신 씨의 히말라야 에세이 <비우니 향기롭다>는 작가가 히말라야 칼라파타르, 안나푸르나 여행길에서 얻은 깨달음을 편지글 형식으로 쓴 산문집입니다. 작가는 1993년 절필을 선언하고 처음 히말라야를 찾은 뒤 한 해 걸러 한 번꼴로 히말라야를 여행했습니다. 이번 여행기 <비우니 향기롭다>에서도 그는 2달 보름 동안 히말라야 산군을 여행하면서 그 깨달음을 기록했습니다. 책에는 특히 티베트 불교에서 받은 영향이 엿보입니다. 티베트불교와 히말라야 트레킹이 물질 문명인을 근본자아로 이끈 듯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숨결'을 지켜봅니다. 히말라야를 여러 날 걷고 있으면

이차원적인 대립과 분리가 사라지고 나의 숨결이 본래의 나와 일치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때가 바로 무념무상의 상태입니다. 이런 느낌은 정말 생전 처음입니다. 두 시간이 지나도록 나는 전혀 쉬지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습니 다. 발걸음은 저절로 나의 숨결 속도에 맞추어 움직입니다. 언제부턴가 호흡은 이미 깊은 복식호흡 체제로 들어가 있고, 머릿속은 텅 비었습니다. 걷고 숨 쉬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내가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125p)

박범신 작가는 살아오면서 주기적으로 '혁명'을 꿈꾸었다고 합니다. 그에게서 '혁명'이란 환경이나 습관의 축적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느끼는 일상 속의 자신을 통째로 뒤집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혁명의 일환으로, 즉 자신을 변화 시킬 방법으로 히말라야 트레킹 여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멈추어라 세상은 아름답다>

하영진법사의 현대적인 반야심경 해석



고통과 해결책을 제시한 하영진법사의 반야심경 해설서 <멈추어라 세상은 아름답다>를 도서출판 생각더하기가 펴냈 습니다.

하영진 법사는 대승불교의 반야부 계통의 경전 중에 가장 간결하면서도 친숙한 <반야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 (Prajna paramita hrdhya-sutra))을 통해 고통과 해결책이 제시 되고 있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하영진 법사가 30년간 불교학을 공부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반야심경』의 이 부분에 오면 하나의 단어가 떠 오른다.

혁명

하며 <반야심경>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간결하면서도 그 논증적 구조가 가장 선명 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덧붙이자면 초기불교사상과 대승불교의 공조사상의 완벽한 논리적 연결을 구축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업은 서양철학에서의 여러 논의 구조들과 철학자들의 사상을 언급 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적 사고와 고민의 구조와 비교하고 대조했습니다.

불교경전 해석에 서양철학적 사유 구조와 굳이 대조를 꾀하는 이유에 대해 하영진 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인간이라는 공통성 속에 사유 방식이나 해답을 찾아나가는 방향은 다를지 몰라도 고민과 문제의식은 같을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둘째, 우리가 비록 오래전 전혀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텍스트를 보고 있더라도 이해와 소통의 장이 형성되는 현재는 거의 모두 서구적 용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영진 법사는 “불교가 서구에 소개된 것은 200년이 채 되지 못한다. 그러나 성과는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시적 성과가 반드시 이해의 정확함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 실질적 내용이 과연 타당한지의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의 확인을 이 글에서 시도해 보고자 한다.”고 밝히고 서양철학과 접목과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하영진 법사는 “고통이란 것이 지금의

나의 상황, 지금의 나를 둘러싼 세상의 모습에 대한 진단이라면 그것의 소멸이란 나의 상황과, 세상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며 “2500년이 넘게 지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때와 다른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상환경은 그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는가? 섣뚱 그렇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기 힘들 듯 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그렇다면 냉정히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와 우리와 세상에 어떤 변화와 의미를 가져다 주었는가? 이렇게 물을 수 밖에 없다”며 “그래서 때때로 허무해지고 때때로 무력감을 이길 수 없는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또 “그러나 부처님은 문제를 자각했을 때도 아무런 망설임 없이 몸을 일으켜 섰고 그 문제를 풀었을 때도 아낌없이 나누셨다.”며 “붓다는 여여如如한 모습 그대로를 보이셨을 뿐이고 고통에서의 완전한 해방, 정도의 완벽한 실현이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 낸 또 하나의 허구인지도 모른다. 또한 붓다의 여여함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이 글이 시작된 동기”라고 피력합니다.

한편 하영진 법사는 1990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 1993년 동국대 대학원 인도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3년부터 1996년까지 공군 군법사를 하며 포교에 전념했고, 전역 후 미국으로 건너가 2001년 하와이주립대 철학과 석사학위를 받았다.

구입문의: 070-4249-1987

티벳의 정신적 지주, 달라이라마 특별법문 BBS 불교방송에서 만난다

여수 석천사 주지인 진옥스님 제공,

1월19일(화)~4월 23일(토)까지 주 1회씩 총 14회 방송

BBS 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은 새해를 맞아 세계의 정신적 스승인 달라이라마 존자의 법문을 듣는 “[BBS특별기획] 달라이 라마 특별법문” TV 프로그램을 1월19일 (화)부터 4월 23일(토)까지 주 1회씩 총 14회 방송한다.

불교방송 선상신 사장은 개국 26주년과 신년을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범하게 홍보할 수 있는 글로벌 콘텐츠를 찾던 중 동국대 티벳대장경 역경원장이며 여수 석천사 주지인 진옥스님이 2015년도 달라이라마 특별 법회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 사장은 진옥스님을 찾아가 “달라이라마존자의 한국 방문이 아직도 성취되지 않아 많은 한국 불자들이 해외성지 순례 법회를 떠나는 등 선지식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교방송 TV 프로그램으로 존자의 법문을 전하고 싶다고 청하였다.

이에 진옥스님은 “달라이라마의 감동수 같은 기록한 법문이 BBS 불교방송 TV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방송될 수 있다니 정말 기쁘다”며 “불교방송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달라이라마의 법문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는데 애쓰겠다”고 답하고 흔쾌히 자료를 불교방송 측에 전달했다.

BBS 불교방송은 매회 2시간씩 총 7번에 걸쳐 설해진 달라이라마 존자의 법문을 50분물로 재편집하여 총 14회로 편성할 예정이며 계속해서 예전에 촬영된 법문과 앞으로 예정될 달라이라마 존자의 법문을 받아 방송을 할 계획이다.

BBS 관계자는 “이번 TV 특집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종교에 관계없이 세계적인 정신적 스승의 깊은 가르침을 국내에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2015년도 특별 법문은 여수 석천사가 주최하고 티벳대장경 역경원이 주관한 <달라이라마 특별법회>로 작년 9월7일~9월10일까지 4일간 인도 북부 다람살라 남갈사원 대법당에서 봉행됐다.

또한 BBS 불교방송은 지난해 2월 도쿄에서 열린 달라이라마 일본 법회에 한국 순례단으로 참석했다. 법회후 이사장 종하 스님이 달라이 라마를 진견하는 등 달라이라마는 특별히 한국 불자들에게 깊은 관심과 고마움을 표하며 한국 방문이 추진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포항 수인사 교도 금화보살입니다 20년 요리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버섯 맛간장'을 선보입니다. 모든 재료 하나 하나 정성껏 준비해 교도 여러분의 건강을 서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많은 분들이 맛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문 전화 (054)231-2520
전화주문 요리의 명가 다미쿡(DAMI-COOK)



금화보살 버섯 맛간장

재료

표고버섯·팽이버섯·느타리버섯·송이버섯·다시마·무·양파·통마늘·통생강

버섯의 효능

장운동·변비·콜레스테롤·혈당 당뇨·발암물질배출
숙취해소·항암효과·탈모·구토·설사·뱀아이를 튼튼하게 하고
간질환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바다의 볼로초 다시마의 효능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주고 당뇨예방
갑상선예방·뱀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

가격

대(, 1.8리터) 20,000원
소(, 0.9리터) 10,000원
※ 10병 이상은 무료 배송 합니다.





불교총지중 본산 '총지사' 서원당

불교의 생활화·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중.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서원합니다.



불교총지중

총기 45년 새로운 모습으로
교도님들과 전국의 불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원정대심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정통밀교의 흥포를 위해 힘없이 달려왔습니다.

아낌없는 심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교도님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총기 45년 상반기 49일 불공

총기 45년 2월 20일 ~ 4월 8일
장소 : 전국 서원당



불교총지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우) 135-928

Tel: 02,552,1080~3

Fax: 02,552,1082